



Climate Group
The Clove Building 4 Maguire Street
London SE1 2NQ
+44 (0)20 7960 2970
info@theclimategroup.org
www.theclimategroup.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3층
+82 (0)2 738 1152
kosif@kosif.org
www.kosif.org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 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한민국

2025년 6월 13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에 선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께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Net-Zero) 달성 가속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적절합니다. 귀 정부의 기후 행동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약속한 400여 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Climate Group 국제 이니셔티브인 RE100의 목표와 긴밀히 일치합니다.

현재 180개 이상의 RE100 회원사들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만 68TWh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의 선도 국가가 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제도적 장벽이 이러한 전환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적 비전, 명확한 이행계획, 실질적인 정책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Climate Group 과 RE100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본 제안들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에너지 안보 강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대한민국이 파리협정의 1.5°C 이행 경로와 부합할 중대한 기회입니다. 현재의 목표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2%에서 21.7%로 하향 조정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기업 수요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최소 33%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보**가 필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은 매우 환영할 만한 비전이며,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도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기존 9%에서 12%(최신 **RE100 연간보고서** 기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성장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과감하게 상향하고, 관련 목표를 장기적인 탈탄소 로드맵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가격 접근성 개선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은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과 제한된 공급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력망 제약(grid constraints)에서 기인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기업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 PPA 제도 개선

귀 정부에서 발표하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 개선 의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법·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은 PPA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및 부대 비용의 투명한 책정, 제한적 계약조건 제거,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PPA 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구조로 설계된다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되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 계획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 및 지역정부 역할 강화

충청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은 Under2 Coalition 의 일원으로,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는 지역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역정부가 국가 기후 정책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정부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 있는 기후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NDC 체계 내에 지역정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포용적이고 분권적인 기후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Climate Group 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리더십을 더욱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본 제안이 향후 정책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elen Clarkson
CEO,
Climate Group

양춘승
CEO,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